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2004년 3월 9일 (화)

발행인/이종헌 편집/길소희

주 소/(701-825)대구 동구 신천3동 147-1

전 화/0502-365-0001, 053-743-6058

홈페이지/creation21.org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1. 노아 (15) 믿음의 본 - 이종헌

2쪽

2. The BIBLE Comes Alive (15) by Clifford Wilson - 이종헌 역

4쪽

3. IMPACT (3) 콩고 공룡을 찾아서 - 이종헌 감수

8쪽

4. 창조단상 (16) 진화론을 다시 생각 한다 - 박종환

12쪽

인사말

꽃피는 춘3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것도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일어난다는 경칩이라는 절기에 예상치 않았던 눈이 내리는 이상한 시절입니다. 이런 이상 기후가 이번에만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빈번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런 환경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외부로부터 에너지의 주입이 없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다시오심이 심히 기다려집니다.

마라나타!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종헌 올림

1.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매월 정기 스터디모임(1,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번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4년 3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 (다음 모임은 4월 1일 목요일)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 (동일교회 세계복음센터 103호)

내용: "공룡의 신비" (4월 1일(목)에는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4장)

발표: 서민호 (지적설계 4장 발표: 이종헌)

약도: 문의전화 (053)743-6058





믿음의 본

아담은 130살에 셋을 낳고,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벳을 낳고, 야벳은 162살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살에 므두셀라를 낳고, 므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살에 노아를 낳고, 노아는 502살에 셈을 낳았습니다. 셈은 100살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고,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고, 스룩은 30살에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고, 데라는 130살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살에 야곱을 낳고, 야곱은 90살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성경에서 어렵게 아들을 얻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6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했다가 잠시 하란에 머무르다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셋 수 없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나오지 않자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여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년 뒤에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며 회의적인 웃음을 웃었던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그두라에게서 다른 여섯 명의 아들을 더 얻을 정도로 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교사를 모셔다가 굉장한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이삭이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닮게 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릇없게는 키우지 않았지만 온갖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젖 때는 날에는 대연을 베풀었으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자 그

를 집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틈에이저가 막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여기에 대해 아들 이삭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결박하는 동안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의 말에 따랐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활 속의 믿음이 아들의 눈에 그대로 비춰져서 아들 또한 그 믿음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리아산 밑에서 사환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할 때, 복수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어떤 형태로든 아들과 같이 돌아오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100살 정도면 이미 인간의 육신적인 상태로는 자식을 얻기가 힘든 나이였습니다. 가까이 살았던 사람으로 데라는 130살에 아브라함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을 때 아들을 낳은 사람으로 므두셀라가 187살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살이 넘어서야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노아가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120년 후에 대홍수가 난다는 말씀을 들은 것이 480살이었고, 그로부터도 20년이 더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자식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본인만 자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은 전통의 화살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자식이 없음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마도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그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 가족 이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나기 몇 십 년 전에는 그의 가족이 중심이 되어 수많은 인부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의 건조에 동원되었던 모든 인부들은 아마도 노아를 비롯하여 작업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때가 이르면 그들이 처음 보는 비가 내리는데 그것도 방주에 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엄청난 양이라는 노아의 말을 믿지도 않으며 방주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다른 어느 직장에서도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생활 가운데서 본받았습니다. 노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밖에서의 생활과 집안에서의 생활 모습이 일치하여, 최소한 가족에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방주의 작업에 동원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믿음의 본을 들 수 있습니다. **창조**

사해바다에 떠 있기

이것은 사별한 처와 내가 성지순례에 가서 다른 방문객들과 함께 사해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다. 물고기조차도 살 수 없는 이런 수역(水域)에서 가라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해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화학 자원이 들어 있다. Zev Zilmay 박사는 자기의 책 *Israel Guide*에서 사해바다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양이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고 적고 있다:

염화마그네슘 220억 톤

염화나트륨 110억 톤

염화칼슘 70억 톤

염화칼륨 20억 톤

브롬화마그네슘 10억 톤

사해에서 나오는 다양한 산물은 이스라엘의 수출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Zilmay 박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물은 약 25퍼센트의 고형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염화나트륨(보통의 소금)이 7퍼센트이다.



사해바다에서 가라앉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해에서는 물고기나 다른 생물이 생존할 수 없다.

사해 가장자리의 소금

이들 두 명의 발굴자들이 사해에 방문하여, 가장자리를 따라 풍부하게 널려있는 소금을 조사하고 있다. 사해의 남쪽 부분에는 깊이가 150피트나 되는 소금 층이 약 15마일에 걸쳐 뻗어있다. 소금과 유황 층들이 비교적 표면에 가깝게 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소금 층이 다른 층들과 함께 갈라져서 대량의 소금이 공중으로 세계 내던져졌다.

눈보라에 휩싸인 사람이 눈 속에 묻혀서 얼어버릴 수 있듯이, 롯의 아내는 떨어지는 소금에 휩싸였다.



하나님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데에 자연의 과정을 사용했을 수 있다.

사해의 남쪽 끝 부근에 있는 언덕이 소금으로 뒤덮여서, 마치 그것들이 하늘에서 쏟아진 것처럼 보인다. 이 대재앙에 소금이 관련되었다는 이야기는 심지어 한 세대 이전에 비평가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치에 닿는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현대에 있어서 놀라운 성경 이야기의 해명에 도움을 주는 것 중의 하나이다. 성경 기록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는 여러 방향에서 나온다. 그 시대의 언어(사장된 단어를 포함하여)가 보존되어 있고; 특별한 사건이 뒷받침되어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이름과 직함이 올바른 문맥 안에 종종 언급된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포함하여, 모든 성경의 역사는 사실적인 기록이다.

호주의 관광 안내자가 사해 근처의 역청을 지적하다

여기 잘 알려진 호주 멜버른의 관광 안내자 Clem Clark이 소돔의 일반 지역에 역청 더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질학자는 그 지역에 많은 양의 소금, 유황, 역청의 퇴적물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천연 개스의 거품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석유가 축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 유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해서 지금은 다시 채워졌을 것이다.

“유황(brimstone)”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 “역청질(bituminous) 물질”을 의미하는데, 그 지역에는 가연성이 큰 역청(bitumen)이 풍부하다.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 14:10에서도 언급되는데,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 즉 역청질 재료의 구덩이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교전의 초기에(창세기 14장)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 골짜기 지역에 빠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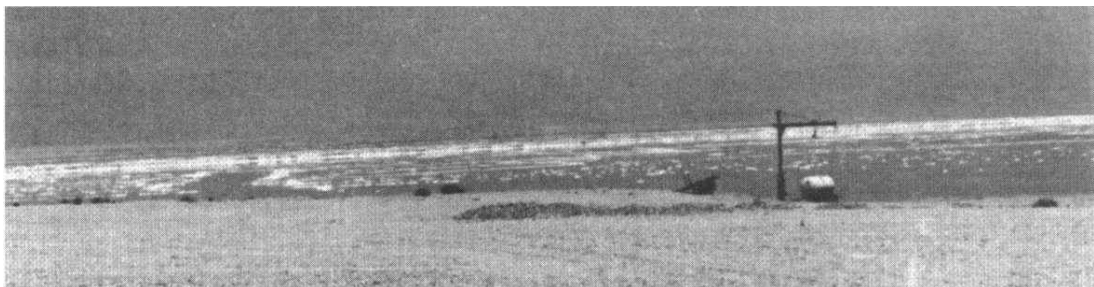
히브리 단어에서 거의 항상 사용하는 세 개의 자음을 이용하면 싯딤과 소돔은 같다. 모음의 발음은 함께 사용하는 다른 단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성경시대의 도시나 마을 이름이 현대까지 유지되고 있는 예가 많이 있다. 예루살렘이 그 한 예임은 물론, 벳산/Beth-shan(지금은 벳시안/Beth-sheam)도 있으며, S'dom(고대 소돔)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호주 멜버른의 Clem Clark이 사해지역에서 나온 역청을 가리킨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사용한 “유황(brimstone)”이라는 단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사해 바다에 있는 소금 선(線)



이것은 큰 파도가 아니라, 사해 자체의 소금선(線)이다. 그 바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관광객은 그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할 것이다.

이 그림의 위쪽 반 부분에 있는 하얀 띠를 처음 볼 때는 부서지는 파도의 부드러운 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금선(線)이며, 유대인들이 소돔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다.

고대에는 소금을 세속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목적에 모두 이용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예루살렘의 신전에서 제물을 만들 때 태우는 양념에 사용하는 성분 중의 하나이다. 터키 사람들이 “성지(聖地)”를 지배했을 때, 그 지역의 베두인들은 원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소금을 채취해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의 시장에서 팔았다. 오늘날에는 훨씬 더 복잡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금을 추출한다.

소금은 바다에서만 나지는 않는다: 사해의 남쪽 부분의 서쪽 면에 있는 Har S'dom의 절벽 전면(全面)에 소금이 묻혀있다. 성경이야기의 사실성이 수용된다면, 이 지역 부근에 상당한 양의 소금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다.

마사다



마사다의 산

이것은 마사다에 있는 산으로 AD 72년에 900명 이상의 유대인이 자살을 했다. 마사다로부터, 사해의 남쪽 부분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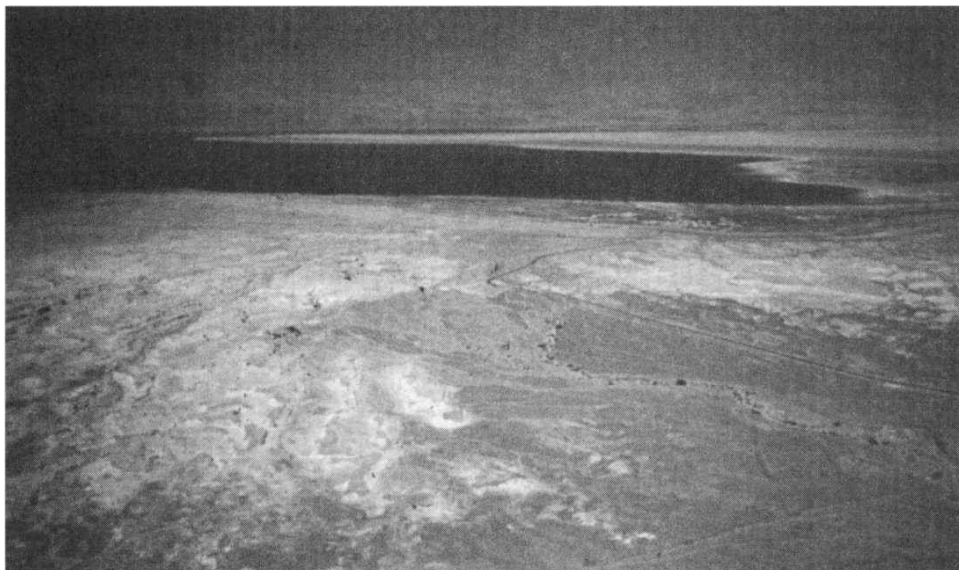
마사다는 AD 72년에 900명 이상의 유대인이 로마인에게 항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 한 것으로 유명한 요새이다. 그 이름은 분명히, “성채(城砦)”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메츄다/Metsuda에서 온 것이며, 그곳은 이 산의 정상을 지켜주는 요새였다. 마사다는 그 단어의 그리스화 한 형태로, 고대 문헌에도 그렇게 등장한다.

이곳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 언급된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 (삼상 24:22)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Metsuda)로 올라가니라』

요새를 의미하는 Metsuda에 대해 또 언급한 곳으로 역대상 12:8이 있다. 여기서도 다윗의 추종자들이 광야로부터 어떻게 해서 그곳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다. 마사다는 집합장소이었음이 분명하다.

마사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시기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사다의 꼭대기에서 보면 사해의 북쪽과 남쪽 부분이 한 덩어리의 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 양쪽에 있어서 (농업이나 기타의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고 나면) 요단강으로부터의 공급이 고갈된다면 어느 곳으로부터도 사해의 북쪽 부분으로 흘러 들어올 물이 없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남쪽 부분에서는 크게 고갈 상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 그림에서 보여왔다.

바다가 땅이 되다



마사다에서 본 사해바다의 일부

북쪽에 있는 요르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위해 요단강의 많은 물을 자기들 땅으로 유출시킨다. 사해의 남쪽은 수세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창세기 14:3에 싯딤 골짜기가 염해가 되었다고 써 있는 것이 흥미롭다. 그것은 편집노트로서, 사해의 남쪽 부분이 한때는 소돔 계곡(싯딤 혹은 S'dom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었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후대에 첨가한 것이다.

위의 사진에서, 사해의 북쪽과 남쪽 부분 사이의 부분을 가로질러 모압 산들이 보인다. 물론 사해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경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산들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다. 앞부분에 마른 땅이 보이는데, 사실상 이것은 사해의 북쪽과 남쪽 부분 사이에 있는 땅이다. 사진의 가운데에서 사해와 관련된 하얀 소금을 볼 수 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위한 목적으로 물을 퍼 올려왔기 때문에 요단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사해의 남쪽 부분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콩고 공룡을 찾아서

(IN SEARCH OF THE CONGO DINOSAUR)

아프리카에서는 항상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다.

B.C. 5세기, 헤로도투스/Herodotus

창조 과학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아마도 공룡이 아직도 먼 밀림 곳에 살고 있을 가능성 일 것이다. 진화와 그것에 수반되는 진화적 발생에 대한 긴 시대라는 필연성은 살아 있는 공룡을 수용하도록 궁지로 몰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부 과학자들이 살아남아 있는 용각류/sauropod 공룡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물인 모켈레 트렘베/Mokele-mbembe에 대한 이야기이다. 오늘날 공룡이 살아있기에 유력한 지역은 광대하고 탐험되지 않은 적도지역 아프리카의 늪지일 것이다.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동식물에 대한 초기 보고의 대부분은 선교사와 탐험가들로부터 나왔다). 1776년, Abbé Lievain Bonaventure Proyard는 그의 책 『아프리카의 Loango, Kakonga, 및 기타 왕국의 역사(History of Loango, Kakonga, and other Kingdoms in Africa)』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정글에서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썼다. 1914년에 출판된 Pinkerton의 번역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그것은 거대함에 틀림없다. 발톱 자국이 나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3피트 정도 되는 흔적을 만들었다. 발자국의 형태/posture와 배열을 관찰한 후, 그들은 그 동물이 이 부분에서는 달리지 않았으며, 한 발톱자국에서 다음 것까지 7내지 8피트 떨어진 거리를 움직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큰 자국은 단지 코끼리 크기의 동물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지만, 코끼리는 그런 발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괴물이었을까? 1913년, 독일 정부는 그 당시 카메룬 식민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Freiherr von Stein zu Lausnitz를 탐험대장으로 선택해서 탐험대를 이끌도록 했다. Von Stein은 ‘콩고 강, Ubangi강 하류, Sangha 강, 그리고 Ikelemba 강 유역의 특정 지역에 사는 흑인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동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적었다. 그들은 그 동물을 모켈레 트렘베/Mokele-mbembe라고 불렀다.

그 동물은 갈색을 띄는 회색이며. . . 그것의 대략적인 크기는 코끼리만하다. 그것은 길고 매우 유연한 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악어 꼬리처럼 긴 근육질의 꼬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동물 가까이 다가가는 카누는 죽음에 처하게 되며, 그 동물은 배를 단번에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지만 시체는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 동물은 굴곡이 심한 곳에 있는 강기슭 진흙에서 강물에 의해 침식된(washed out) 동굴에서 산다고 한다. 그것은 먹을 것을 찾아 심지어 낮에도 강기슭

을 오르며, 일상적인 먹이는 야채뿐이라고 한다.

1976년, 파충류학자/herpetologist인 텍사스의 James Powell이 열대림 악어/crocodiles를 연구하기 위해 가봉을 여행하기 전까지는 모켈레 트렘베/Mokele-mbembe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Powell은 Fang 사람들과부터 N'yamala라고 불리는 엄청난 크기의 강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Michael Obang이라고 불리는 그 지방의 주술의/witchdoctor는 1946년에 정글 웅덩이에서 나오는 N'yamala를 본 것과 똑같은 것으로 공룡책자로부터 디플로도쿠스/diplodocus 중의 한 그림을 골랐다. Powell은 나중에 이러한 정보를, 시카고 대학의 생물학자이자 존재가 증명 안 된 생물체를 연구하는 국제협회의 부회장인 Roy P. Mackal 박사에게 전했다.

1979년, Mackal과 Powell은 모켈레 트렘베의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콩고 인민공화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Mackal은 그들의 활동이 Likouala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은 주기적으로 침수되는 거대한 늪지로서 대부분의 지도에는 공백으로 되어 있다. Ubangi 강에 위치하고 있는 Impfondo 북부 마을에서, Mackal과 Powell은 1955년부터 콩고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오하이오 출신의 Eugene Thomas 목사님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Thomas는 모켈레 트렘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서, 그 괴물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을 부르러 보냈다. 처음에 Mackal은 자신이 살아 있는 공룡의 생흔(trail) 위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모든 증거들을 통해 볼 때, 공룡에 관한 Mackal의 책에 있는 아파타사우루스/apatosaurus와 디플로도쿠스의 삽화가 모켈레 트렘베와 꼭 닮았다는 것이 두드러졌다. Mackal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그 동물의 크기가 15에서 30피트이며, 대부분이 머리와 목과 꼬리라고 설명했다. 머리는 뚜렷하게 뺨 같고, 꼬리는 길고 가늘며, 몸통은 대략 코끼리 또는 적어도 하마 정도이다. 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3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다. 그 동물의 색은 적갈색이고, 머리 꼭대기에서 목 뒤 아래까지 수탉과 같은 주름장식이 달려있다.

모든 목격자들은 모켈레 트렘베가 강, 하천, 및 늪지의 호수에 살며, 희귀하고 위험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시간이 흘러서 Mackal과 Powell은 미국으로 되돌아갔으며, 보고서를 애타게 기다렸다. Mackal은 1981년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콩고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Likouala aux Herbes 강에서 남쪽으로 향했다. 그는 멀리 떨어진 텔레/Tele 호수까지 가려고 했는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곳은 적어도 모켈레 트렘베 한마리가 1960년에 Bagombe 피그미족에 의해서 창으로 찔려 죽었다는 늪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작고 얕은 수역이다. 불행히도, 아직 탐험되지 않은 Bai 강에서 그 호수까지 이어지는 좁은 수로는 낙엽으로 꽉 차 있어서, 통나무를 파서 만든 무거운 카누로는 나아가는 게 불가능했다. 탐험대가 Epena 마을 바로 남쪽에 있는 강 굴곡부를 돌고 있었을 때 흥분으로 인한 동요가 일어났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둑 근처에서 커다란 동물이 갑자기 잠수하면서, 18인치 높이의 파도를 일으켜 Mackal의 카누를 쳤다. 악어는 그러한 항적을 남기지 않으며, 그럴 정도의 하마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그미족의 말에 따르면, 모켈레 트렘베가 그것들을 모두 멀리 쫓아냈기 때문이다.

또한 1981년에는,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출신 엔지니어인 Herman Regusters는 그 자신의 탐험대를 콩고로 인도해서 실제로 텔레/Tele 호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호수를 탐험하는 동안, Regusters와 그의 아내 Kia는 고무보트에서 30피트 정도 떨어진 물에서, 길고 우아한 목에 뱀 같은 머리를 가진 동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 동물은 놀란 탐험가들을 몇 초 동안 그 차가운 파충류의 응시로 바라본 후 물 속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탐험이 끝날 무렵, Regusters 팀은 어느 밤에 거대한 동물이 그들 캠프 근처에 있는 습지를 지나갈 때 귀를 찢는 듯한 울부짖음을 들었다. 1983년에, 콩고의 생물학자인 Marcellin Agnagna는 그 자신의 탐험대를 이끌고 텔레/Tele 호수로 갔다. 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늪지를 5일 동안 탐험한 후에, Agnagna와 그의 동료들은 물 속으로 움직이는 커다란 동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도마뱀처럼 작은 머리와, 긴 목, 그리고 크고 넓은 등을 가지고 있었다. Agnagna는 그의 Super 8이라는 영화촬영기/cine camera로 그 동물을 찍으려고 했으나, 너무 흥분한 나머지 렌즈를 매크로기능(가까운 거리의 물체를 촬영하기 위한 것)에서 장거리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생생한 필름 증거는 세계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나 자신이 콩고로 (처음으로) 원정한 것은 1985년 11월부터 1986년 5월까지 이루어졌다. 비록 더딘 관료적 체계로 인해 수 주 동안 브라자빌에서 지연되었지만, 고맙게도 Thomas 목사가 여러 정부 부서에 있는 인맥을 이용해서 우리의 여행을 도왔다. 우리는 무성한 숲을 가로질러 5일간의 도전적인 강행 끝에 드디어 텔레/Tele 호수에 도달했는데, 지나오는 동안 우리는 고릴라, 침팬지, 큰 비단 뱀, 악어, 거북이들을 목격했지만 커다란 괴물은 만나지 못했다. 우리도 또한 콩고의 시골 사람들 사이에 므켈레 므뱌베에 대한 공포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때때로 그것이 정보 수집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 가이드는 매일 사냥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원숭이를 쏘다. 그 잔해(피부와 머리)는 포름알데히드에 보존해서, 후에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 자연사박물관에 증정했다. 그 원숭이는 나중에 *Cerocebus galeritus*, 즉 꼭대기 장식이 없는 망가비/mangabey 원숭이라는 새로운 아종으로 분류되었다.

나의 두 번째 원정은 1992년 11월에 시작되었는데, 선교사들이 무료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Impfondo에 있는 사역지에 의약품 비상 배달로 말미암아 그 기간이 두 배로 되었다. 이번에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Bai 강 북쪽으로 향했으며, 조밀한 늪지를 가로질러 북서쪽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지도상에도 들어있지 않은 두 개의 작은 호수를 발견했다. 또 다시 우리 가이드들이 그 지역에 살아남아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늪지에 대한 탐험을 줄여야만 했다. 비록 Likouala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디에 가면 모켈레 므뱌베를 목격하고 촬영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들은 외부에서 온 백인에게 그 동물에 대해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우리로 하여금 주요한 발견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것은 단지 두려움과 미신에 불과했다.

1994년에, 콩고에서 내전이 발생해서 그곳으로의 세 번째 원정에 대한 가능성이 꺾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는 탐사를 계속하기 위해 중앙아프리카 내의 대체 장소를 찾기 시작했으며, 카메룬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콩고에 인접한 그 나라의 남쪽은 거의 탐험되지 않아서, Freiherr von

Stein이 1913년에 그것을 묘사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거진 삼림에, 높지, 그리고 깊고 넓은 강이 많았다.

2000년 11월에, 나는 뉴햄프셔, 콩코드 출신의 Dave Woetzel과 함께 카메룬으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Baka 피그미들과 정글에서 정기적으로 사냥을 했던 카메룬 국민인 Pierre Sima와 협력했다. 추가적인 필수품을 구입한 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다.

우리는 나머지 시간을 허리 깊이의 늪지를 가로질러 무거운 걸음걸이로 걸으며 한 피그미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면서 보냈다. 우리의 노력은 1986년부터 2000년 4월까지 걸친 모켈레 트렘베의 활동을 직접 목격함으로 보상받았다. 비록 Baka 사람들은 그 동물을 La`Kila-bembe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콩고의 Kelle 피그미들과 일치되게 설명했고, 그 괴물들이 카메룬 남부의 강과, 습지, 하천에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 또한 피그미족들도 그 괴물에 대해 설명할 때 일련의 피부 돌출(dermal spikes)이 목, 등, 꼬리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이것은 1991년에서야 고생물학자들에게 알려진 용각류(sauropod)의 신체의 특징이다. 그리고 무거운 목 주름장식과 머리 위에 최대 4개의 뿔로 무장한 커다란 사지동물(quadruped)을 포함해서 그 숲과 늪지에 서식하는 다른 이상한 동물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얻었다. 우리의 목격자들은 코끼리를 죽여서 창자를 꺼낸다고 소문이 난 이 동물과 똑같이 닮은 것으로 트리케라톱스의 그림을 즉시로 골라냈다.

놀랍게도 콩고의 피그미들과는 달리 카메룬의 Baka 피그미들은 카메룬 남쪽에 있는 신비한 동물에 대해 초자연적이거나 신화적인 믿음을 부여하지 않아서 우리의 질문에 기쁘게 답했고, 그것들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검증을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북미 곰과 같은 다른 동물들의 사진도 보여줬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알아보지 못했으므로, 그들 보고의 정확성과 성실함의 정도가 확립되었다. 우리의 진보에 사로잡혀, 우리는 모켈레 트렘베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진보를 이루었다는 생각으로 상당히 자극되어 집으로 되돌아왔다.

2002년 2월에, 나는 4명의 기독교인 탐험대와 함께 카메룬으로 돌아왔다. 적절한 수송수단을 찾는 문제로 많은 소중한 시간이 소모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 지역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또다시 우리의 친구 Pierre Sima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목격자들과 인터뷰를 해서 모켈레 트렘베와 그 지역의 다른 신비로운 동물들에 관해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했다. 하지만, 건기였기 때문에 강 수위는 매우 낮았고 실제적인 현장 조사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모켈레 트렘베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우기에 되돌아와야만 했었다.

나는 우리가 모켈레 트렘베가 있는 위치를 찾아서 촬영할 수 있는 가능성에 아주 가까이 왔다고 믿기 때문에, 현장의 정확한 위치에 관한 세부사항이 부족하더라도 독자들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올해 10월에 카메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피에르 시마/Pierre Sima와 협력할 것이다. 나의 5번째 원정인 이번에는 아마도 *최후의 살아있는 화석인, 모켈레 트렘베*를 마침내 촬영할 것이다!

*Mr. Gibbons는 모켈레 트렘베를 찾기 위해 아프리카로 탐험대를 4번 이끌었다. **참조**



진화론을 다시 생각 한다

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대진화)하는 데는 수천만 년 또는 수억 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우연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적자생존**(適者生存-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개체가 살아남는다) 또는 **자연도태**(自然淘汰-적응하지 못하는 개체는 자연히 멸종되어진다)를 통하여 생물은 진화한다고 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생물은 단순한 구조에서부터 점점 복잡한 구조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기능면에서도 간단한 기능에서 분화된 기능을 갖게 되어간다고 한다. 따라서 최고, 최후의 존재인 인간은 어떤 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한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인간이 과연 최고의 존재인가? 물론 두뇌를 쓰는 수준은 최고일 것이다. 하지만 힘이 소나 말보다 강한가? 눈이 독수리보다 밝은가? 귀가 개나 물고기보다 더 잘 듣는가? 코가 돼지보다 냄새를 잘 맡는가? 호랑이나 타조보다 빨리 달리는가? 모든 부분에서 다른 동물보다 우월해야 할 사람이 우월한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런 진화론의 사고가 우리를 멍들게 한다. 특히 사람을 보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만드신(창1:27) 존재로 보지 못하고 단지 동물의 후손, 아니 고작 메탄 같은 기체(무생물)의 후손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사람을 해치는 것을 무슨 돌멩이 하나 발로 차는 것처럼 생각하고,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진화(進化)된 존재, 즉 가장 발달된 존재라야 생존하게 된다는 인식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신보다 지식이나 기능면에서 부족한 사람을 업신여겨, 학교에서는 '왕따'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키가 작은 것도 불만이고, 눈이 작은 것도 불만이고,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불만이다. 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것이 진화론의 영향이 아닐까? 가만히 보면 불만 사항 어느 하나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만(예컨대, 게으름이나 친절하지 못함 등)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인식보다는 앞에서 말한 적자생존하기 위해 타도(?) 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혼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후 10:4-5)'

과학으로 포장된 진화론(엡4:14)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신앙 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